

【 특 집 】

1940년대 『만선일보』의 조선문학 건설 담론에 대한 연구*

—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의 제기 동인(動因)을 중심으로—

사책(史策)**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재편과 문화인 동원
- III. 『만선일보』 편집국장의 교체
- IV. 재만 조선인 문단의 정체성 위기와 문인의 대응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40년 『만선일보』에 게재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라는 주제 토론의 제기 동인을 ‘정치 조직체’, ‘저널리즘’, ‘문인 단체’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그의 부진을 극복하여 협화회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1940년 초부터 재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중 문화부는 ‘전민적인 선계문화운동’을 통하여 재만 조선 문화인과의 소외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경선계문화인에 기함」에서, 문화부는 신제의 토론이 그들에 의해 조직된 문화적 운동이라고 밝히며 재만 조선인 문단에서 합법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또한, 1940년 초에 『만선일보』 편집국장은 염상섭에서 홍양명으로 바뀌었다. 염상섭은 편집국장 시절에 창작욕이 거의 없었고, 위만주국 문화 건설의 윤리와 전략에 회의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며, 만주 조선인 문

* 본 논문은 중국 국가유학기금 관리위원회(China Scholarship Council)와 한국 정부초청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의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 글은 2023년 2월 16일 만주학회·만선일보연구회·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만주학회 2023년 겨울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논문을 위해 귀한 의견을 나눠주신 서재길 교수님과 최현식 교수님, 그리고 만선일보연구회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단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학 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반해 홍양명은 일본인 주간과 협화회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편집국장 시절에 다양한 지면에서 평론을 썼다.

한편, 재만 조선 문인들이 문단의 정체성 위기를 의식하여 문단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이 토론의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939년부터 조선 문인들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풍토 인습에 대한 표면적 관찰 형태에서 '만주 개척'이라는 서사적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관찰자로서의 타자'에서 '창작 주체로서의 타자'로의 전환은 재만 조선 문인들에게 '만주 개척' 서사의 진실성 문제를 걱정하게 했다. 또한, 위만주국 성립에 따라 조선인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계급구조와 지역 분포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이로 인해 재만 조선인 문학이 이전의 유형을 초월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으로 갱신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은 신제의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만선일보,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 협화회, 염상섭, 홍양명, 대지의 아들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만선일보』에 실린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에 대한 주제 토론(이하 '신제의 토론'으로 약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만선일보』는 『만몽일보』와 『간도일보』의 병합으로 1937년에 창간된 위(偽)만주국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다. 『만선일보』의 학예면은 재만(在滿) 조선 문인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면으로서 만주 조선인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제의 토론은 1940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21회 연재되었다.¹⁾ 이 토론에서 열 명의

1) 이 토론은 진행되면서 후에 제목이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창(新提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40년 1월 25일자 『만선일보』 결호로 인해 金春崗의 논설 1회가 확인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서재길의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 해제」(2022, 『만주연구』 34, 만주학회, 163-166쪽) 참고.

재만 조선 문인²⁾들이 만주 조선문학 건설을 주제로 그동안 문학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했고, 문단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제의 토론은 만주 조선인 문단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텍스트로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의 궤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제의 토론의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만 조선 문인의 지적 담론에서 나타난 공통적 인식과 쟁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신제의 토론을 다른 지적 담론과 연결하여 더 넓은 문맥상의 단서를 찾으려고 시도했다.³⁾ 다른 하나는 일제 말기 특정 문인들의 이론적 모색과 문학적 실천을 한층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신제의 토론을 보조 자료로 삼는 것이다.⁴⁾ 요컨대 간의 연구는 신제의 토론에 대한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를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토론에 대한 내적 논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이 토론의 발생론적인 탐색은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방면에서의 노력이 없지 않은 않다. 예를 들면, 리하일라·허워드(Lehyla G. Heward)는 신제의 토론을 포함한 재만 조선 문인의 문학적 활동을 만주 문학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위치시킨 뒤 국

2) 구체적으로 신제의 토론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황건, 윤도혁, 김귀, 박영준, 김춘강, 이광현, 현경준, 신서야, 안수길, 송지영.

3) 정덕준, 이상갑, 장춘식, Lehyla G. Heward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덕준과 이상갑의 연구는 신제의 토론을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비평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여 담론의 주제에 따라 이를 '문단 현황', '성격 규명', '미래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장춘식의 연구는 위와 유사한 분류법을 취하여 토론자의 입장에 따라 '성격 규명'의 부분을 '이중성문학론', '이민문학론', '판단유보론'으로 세분화 하였다. Lehyla G. Heward의 연구는 신제의 토론과 1940-1942년의 다른 지적 담론을 연결하여 토론자들이 독자층과 문인과의 소통망의 확대 등의 방식으로 만주 문화 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했다(정덕준·이상갑, 2004,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377-402쪽; 장춘식, 2012, 『《만선일보》 지상토론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의 가치와 의미』, 『건지인문학』 8,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23-351쪽; Lehyla G. Heward, 2020,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ŏn ilbo, 1937-194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3 No.2,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395-418쪽 참고).

4) 최일의 '염상섭 연구'와 이해영의 '안수길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일, 2014, 「염상섭과 재만조선인문학-만주 로컬리티(locality) 인식을 중심으로」, 『만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225-241쪽; 이해영, 2017,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만주학회, 101-129쪽 참고.

민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담론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허위드의 분석에 따르면, 재만 조선 문인들은 “자신들이 재만 중국·일본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고 현지화된 문화 산물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문학을 활용했다”⁵⁾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신제의 토론이 제기되는 필연성을 분석했을 뿐이며, 1940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에 이 토론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 신제의 토론의 최초 토론에서도 지적했듯이, “勿論 過去에도 이곳에서 朝鮮文化 方面的 各種 作品이 發表되지 안흔 것은 아니나 그는 너무도 散漫하였스며 너무도 區區不一하였던 것이다. 文壇의으로 그럴듯한 中心的 存在라는 것이 거의 업섯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⁶⁾라는 기자의 선언이 있었다. 문제는 왜 위만주국 성립이 8년이 지났는데도 재만 조선인 문단의 상태는 여전히 ‘산만’하고 ‘구구불일(區區不一)’ 하며, 심지어 ‘문단적으로도 그럴듯한 중심적인 존재’마저도 거의 없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왜 1940년부터 문단 건설에 대한 ‘각오’가 생겨났는가? 1940년이라는 시점이 단지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한 아름다운 우연일 뿐인 것인가?⁷⁾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40년 전후 재만 조선인 문화계의 양상을 ‘정치조직체’, ‘저널리즘’, ‘문인 단체’의 세 가지 각도로 관찰함으로써 신제의 토론의 제기 동인(動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신제의 토론이 재만 조선

5) “Recalling the mechanics of nation-building prevalent in the 1940s throughout Asia, Korean intellectuals used literature to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prove that they were producing valuable, localized cultural products along with the Chinese and Japanese intellectuals residing in Manchukuo.” Lehyla G. Heward, 2020, 앞의 논문, 415-416쪽(만선일보연구회에서 제공한 한글 번역문 참고).

6) 기자 서언, 『滿洲朝鮮人 文學과 文學人的 信念 (上)』, 『만선일보』, 1940.1.12.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신제의 토론의 원문은 서재길의 정리(서재길, 2022, 앞의 논문, 163-220쪽)를 참고한다. 이하 인용하는 신제의 토론의 원문은 처음에만 서지서향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생략하도록 한다.

7)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1940년은 특별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1940년 8월에 발생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강제 폐간은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일제말기’ 또는 ‘1940년’을 개념화하여 모든 사건의 원인으로 단순화하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접근은 권력 작용의 관계와 논리를 더 미시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노력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텍스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위의 언급된 상황을 극복하고, ‘신제의 토론’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와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 문화계에서 다양한 권력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신제의 토론은 문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일제 말기와 저널리즘이라는 시공간에서 문화 생산의 복잡한 과정을 걸친 후 나온 산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후속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동인이 이 과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II.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재편과 문화인 동원

먼저, 신제의 토론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재편 작업이 이러한 발생론적 문제에 대한 가장 뚜렷한 착안점이며, 그 중심은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상급 기관인 협화회(協和會) ‘신경 조선인 분회’이다. ‘협화회’는 위만주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위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만주 민중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결성한 관동군의 조직체였다.⁸⁾ 그의 전신은 1932년 4월 1일에 관동군이 내세운 ‘협화당(協和黨)’인데 같은 해 7월에 국무원 산하의 위만주국 협화회로 개편되었다. 협화회의 신경 조선인 분회는 바로 협화회에서 1935년에 각 민족 분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한 후, 1938년에 설립된 최초의 민족분회였다. 협화회의 공적인 성격은 그의 강령과 조직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협화회의 강령에 따르면, 협화회는 “唯一永久하며 建國一致의 실천조직체로서 정부와 表裏一體⁹⁾가 되어야 한다.” 초대 명예총재는 위만주국의 황제 푸이(溥儀), 명예고문은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本莊繁), 그리고 회장은 위만주국 국무원 총리 정효서(鄭孝胥)였다. 저널리즘과 문필계를 동원함으로써 위만주국의 ‘건

8) 문경연·최혜실, 2008, 「일제말기 김영팔의 만주활동과 연극 〈김동한〉의 협화적 기획」, 『민족문화사연구』 38, 민족문화사연구소, 317쪽.

9)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 1936.9.18, 『協和必携』, 1-27쪽(親日反民族行爲真相糾明委員會 편, 2007, 『親日反民族行爲關係史料集 XI』, 서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628쪽, 재인용).

국 정신'을 선전하는 것은 협화회의 중요한 지침이었다. 특히 대중화 노선으로 바뀌는 1936년 7월의 2차 개편에 들어선 협화회는 '건국 정신의 현양(顯揚)', '민족 화합의 실천', '국민 생활의 향상', '선덕달정(宣德達情)의 통달', '국민 동원의 완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강령을 확립했고, 협화회 중앙본부 총무부장 하라 타쓰로(營原達郎)는 "정신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뉴스·잡지·팸플릿·서적 등과 기타 문서의 선전·강연·라디오·TV·연극 등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¹⁰⁾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9년 말까지 협화회 신경 조선인 분회는 매우 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41년 새해 『만선일보』에 실린 '협화회 민족별 회원 수'에 의하면, 재만 중국인 회원은 1,022,679명, 재만 일본인 회원은 124,108명에 달했으나 조선인 회원은 48,796명에 불과했다.¹¹⁾ 또한,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재만 조선 문화인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1940년 1월 23일 『만선일보』 1면에,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게재된 「新京鮮系文化人에 寄함」이라는 사설은 매우 강한 어조로 재만 조선 문화인들이 문화부의 활동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했다.

從來의 文化部の 微溫의인 文化運動은 機構內容의 不充實에도 理由內容의 不充實에도 理由가 없지 않겠으나 보다 더 重要한 것으로 指摘할 것은 在京鮮系文化人和 文化部와의 有機的 聯繫를 缺如하고 혹은 忽諸視하고 심지어는 對岸火視함에 緣由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은 全滿洲에 散在해 있는 鮮系文化人이 協和運動의 一貫的 任務로서 文化運動을 提起하려고 意慾하는 氣運이 處處에서 釀成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 更一層 吾人은 國都의 鮮系文化人으로서 어떻게 하면 全滿의 鮮系文化運動을 일으키고 鮮系文化人이 橫으로 聯繫해야 서로 步調를 같이하면서 鮮系文化人으로서의 새로운 襟度와 새로운 軌道를 他에 보일 수 있을가를 嚴肅하게 眞摯하게 생각할 現階段에 處해 있고 또 그리함에 依해야서 鮮系國民이 爾餘民族과 相互提携 協和하면서 發展해야 나아갈 當爲性을 吾人은 文化運動 錦上에서 認하는 바이다.¹²⁾

10) 營原達郎, 「協和會之全貌」(石麗珍·王志民, 2002, 『僞滿洲國史料』,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 569-594쪽 참고).

11) 「協和會民族別會員數」, 『만선일보』, 1940.1.1. 참고.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 사설의 담론 대상의 범위는 신경(新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만(全滿)적인 조선 문화인까지 확장된다.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재만 조선 문화인들의 문화부에 대한 경시나 적대적인 태도를 그간 문화 사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부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만 조선 문화인들은 넓은 도량을 가지고 문화 운동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며,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전만(全滿)적인 선계문화운동을 일으키고 문화인을 황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인과 문화부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중심으로 한 이 사설은 바로 협화회 문화부 재편의 한 결과물이다. 이 사설이 게재되기 이틀 전에 신경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는 1월 15일에 개최한 협화회 수도 계림 분회 문화부(協和會首都鷄林分會文化部)의 신춘 제1회 문화부 회의(新春第一回文化部會議)를 이어 신년도의 업무방침과 기구재편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¹³⁾

- 一、新年度工作方針:
 - 1. 滿語講習開講의件,
 - 2. 座談會及講演會開催의件,
 - 3. 部員作品朗讀會勵行의件;
- 二、機構改革及強化의件;
- 三、役員選舉의件;
- 四、文藝雜誌發刊의件;
- 五、演劇班舊正第二回公演의件.¹⁴⁾

그중에서도 신경 조선인 문화부의 인사 변동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신입회원은 申瑩澈, 朴忠根, 宋鐵利, 宋志泳, 鄭鎮弼, 黃載健, 李大均, 金景圭, 田蒙秀, 尹道赫, 崔昌國, 申彥龍으로 총 12명이다. 김영팔은 문화부장에 유임되면서 연극반

12) 「新朝鮮系文化人에 寄함」(社說), 『만선일보』, 1940.1.23.

13) 앞의 글, 참고.

14) 「朝鮮人協和文化部 今年度第一回總會: 機構改革과 本年度工作方針을 決定」, 『만선일보』, 1940.1.22.

장을 겸임하였고, 장현근(張鉉瑾)은 서무반장에 유임되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입회한 신영철은 문예반장을 맡게 된다. 여기서 신영룡은 만선일보사의 사회부장이며 신영철, 윤도혁, 황재건 세 명은 『만선일보』 편집국의 학예면에서 일하게 된다. 또한 송지영은 동아일보사의 신경특파원이다. 물론 입회라는 일도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신입회원을 직접 지도부에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서도 저널리즘과 자신을 연결하려는 조선인 협화회 문화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진지에 속했던 『재만조선인통신』은 1940년 이후 다시 간행되지 않아 ‘선덕달정(宣德達情)’을 위한 새로운 지면을 찾는 일이 시급했다.¹⁵⁾

이처럼 언론인을 조선인 협화 문화부에 가입시킨 것은 저널리즘과 연결된 고리의 확립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작동은 바로 입회한 문화인이 문화부를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문단 건설의 과제를 문화부와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다시 살펴보자. “萌芽期에 있던 滿洲朝鮮人文學이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發足を 하려고 眞摯한 이 땅의 文學人에 依해야 文學建設의 新提唱이 絶世되어 오는 今일에 있어 더욱 新京朝鮮人文化部の 潑刺한 文化的 活動이 期待되어 마지않는다”¹⁶⁾라는 구절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게재될 때 신제의 토론은 이미 9회까지 연재되어 저자가 황건, 윤도혁, 김귀, 박영준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중에는 황건(본명: 황재건)과 윤도혁은 이번의 신입회원이며, 박영준은 협화회 반석현(磐石縣) 본부¹⁷⁾에서 근무했다.

이와 같은 발표 시기와 순서의 배부는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마지막

15) 『재만조선인통신』는 일본육군 특무기관 산하의 부속기관으로서의 흥아협회(興亞協會)에 1936년 6월부터 봉천에 창립한 흥아협회의 기관지이다. 흥아협회는 소위 사상선도(思想善導)를 통해 독립운동세력과 조선인의 연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봉천지역 친일 세력의 육성과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이 ‘통신’은 1936년 4월 1일 제1호를 시작으로 1939년 12월 1일까지 총 73호가 발행되었다(황민호, 2006, 『滿洲地域 親日言論 ‘在滿朝鮮人通信’의 發行과 思想統制의 傾向』, 『한일민족문제연구』 10, 한일민족문제학회, 3-42쪽; 황민호, 2008, 『흥아협회 기관지 ‘재만조선인통신』, 『승실사학』 21, 승실사학회, 373-389쪽 참고).

16) 「新京朝鮮系文化人에 寄함」(社說), 앞의 기사.

17) “筆者는 小説家, 協和會 磐石縣 本部勤務.”(박영준, 「現段階의 眞實한 批評과 發表機關의 期待(下)」, 『만선일보』, 1940.1.24).

두 번째 발표자로서의 안수길은 그의 글에서 황건과 윤도혁의 논지를 간단히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전 발표자의 글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맥락에서 신제의 토론의 텍스트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하라 타쓰로(營原達郎)가 말한 것처럼 정신 운동을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협화회 문화부 문예반을 가입하라는 황건의 제안도 그렇고, 협화회의 문학 운동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김춘강의 충고 역시 그렇다. 그중 신입회원으로서의 윤도혁은 문필계의 “경박하고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며, 협화회 문화부가 문화 사업을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¹⁸⁾ 그의 발언은 그 사설의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III. 『만선일보』 편집국장의 교체

이처럼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재편은 신제의 토론이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목적은 재만 조선인 문단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문화인을 연계하는 동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조선인 협화 문화부와 재만 조선 문인을 주체로 한 텍스트들에서 나타난 강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문단 건설을 주체

18) “여기에 가장警戒할 바는 詩라든지 小説이 幾篇만 活字化되고 보면 完成된 大家然한 行勢를 하라는 輕薄하고 敬虔치 못한 마음과 學者로서의 謙遜치 못한 態度는 버려야 할 것이며 地域的 關係로 遠距離에 있으면 모르되 近距離에 있다면 研究와 批判과 檢討를 爲主로 하는 어색한 霧圍氣 卽 크름을 맨드러 各自의 見解를 彼此 披瀝하고 眞正한 批判眼으로써 自己 襟度를 펴는 가운데에 새 知識을 엿게 되고 아울러 相對者에게 自己가 모르는 缺陷을 새닷게 하며 遠距離에 있으면 通信 등으로라도 連繫를 맺는 것이 緊要한 方法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한便 協和會 文化部가튼 機構를 利用하여 定期的 會合으로 相互 友誼的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知的 涵養을 쌓았으면 한다. 新京에도 鶴林分會가 機構 上으로 보아서는 文化部라는 커다란 看板을 부치고 그 미테 各 部門을 通하여 文藝班이니 美術班이니 演劇班이니 音樂班이니 하는 壯壯한 部署들이 連坐하고 있스나 무엇을 하며 事業이 무엇인지 모를만치 無意味한 存在로 맞게 더 解釋될 게 업더니 近日에 드르니 새로히 革新을 企圖하고 部員의 人的 強化와 今後 事業遂行에 到하여 銳意努力 中이라 하니 이 쌍의 文化를 爲하여 慶賀할 바이며 今後의 活動을 더욱 期待하여 마지안는 바이이다.” (윤도혁, 「明日의 文學史와 作品의 價値(下)」, 『만선일보』, 1940.1.19.)

로 한 신제의 토론은 만주 문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단계에 불과하다. 심지어 재만 중국인 문단과 일본인 문단에 비해, 재만 조선인 문단의 토론은 상대적으로 뒤늦은 편이었다. 예컨대, 1937년 즈음에 재만 중국인 문단에서는 향토문학¹⁹⁾에 대한 필전(筆戰)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재만 일본인 문단에서는 ‘만주문학론’²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재만 조선인 문단이 다른 문단에 비해 뒤떨어지는 원인이다. 또한, 신제의 토론의 등장이 이러한 현상의 해소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따라붙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만주 조선인 문단과 『만선일보』의 특수한 관계에 있다. 물론 그전에 용정에 있는 북향회(北鄉會)는 1935~1936년 사이에 동인지 『북향』을 통해 문학 활동을 다수 전개했다. 창간 이후의 『만선일보』는 위만주국의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서 문단 건설이라는 의제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신춘문예제도의 도입(1938) 등으로 재만 조선인 문단의 생산, 분배, 유통, 재생산 등을 독점하였는데 그 권력이 막강하였다.²¹⁾ 그러나 그때까지의 재만 조선인 문단은 이차적으로 취급되었고 하나의 독립적 문학 장이 아닌 조선중앙문단의 해외 문단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면, 당시 재만 조선 문인들은 작품을 조선 문단으로 기고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조선에 발표하지 못한 작품을 『만선일보』에 투고하는 차별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신제의 토론에서도 황건, 이광현, 안수길에 의해 지적된다.²²⁾ 특히 황건은 이러한 행위를 “문단 건설 중의 모든 의욕을

19) 향토 문학 필전에 대해 왕위외의 「历史困境中的文学选择—论伪满时期山丁的“乡土文学”主张」(2016, 『만주연구』 22, 2016, 만주학회, 111-124쪽), 정겨울의 「‘향토’서사로 다시 읽기-량산딩(梁山丁)의 문학주장과 작품을 중심으로」(2020, 『만주연구』 30, 만주학회, 205-243쪽) 참고.

20) ‘만주문학론’에 대한 재만 일본 문학인들의 다양한 태도에 대해 유수정의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2011, 『한일군사문화연구』 11, 한일군사문화학회, 279-295쪽) 참고.

21)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37년 이후 위만주국에서 출판한 조선인 창작집(『씩트는 대지』, 『滿洲朝鮮文藝選』, 『재만조선시인집』, 안수길의 단편소설집 『북원』)은 그 창작 주체가 모두 『만선일보』 학예면에서 활약하고 있던 기성 문인들이었다.

22) 구체적으로는 황건, 이광현, 안수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황건: “文學 修練의 目標을 朝鮮 中央文壇에의 進出에 두고 그곳에서의 가까운 榮華를 憧憬하여 왔든 나머지 이곳 滿洲에서의 活動實踐이라든지 自身이 棲息코 있는 이곳 文壇에 留意함에서의

상실 또는 망각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신제의 토론은 문인과 문인 사이의 연결과 문인과 『만선일보』의 연결을 모두 강조한다. 말하자면, 『만선일보』를 거점으로 문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신제의 토론의 주된 논지이다. 이 토론 직후 게재된 평론에서 김우철은 신제의 토론은 “意義重大한 事業”이고 “이제 **바야흐로** 滿鮮日報을 本據로 하여 滿洲文壇이 形成된다”²³⁾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재만 조선 문인뿐만 아니라 만선일보사의 인식 변화는 만주문단의 형성에 이바지한 것이다. 이러한 만선일보사 인식의 변화는 신제의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일어난 『만선일보』 편집국장의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다.

1939년 9월, 만선일보사의 초대 편집국장 염상섭은 사표를 냈고, 원래 『만선일보』 정치경제부장이자 편집인이었던 홍양명(洪陽明, 본명 홍순기(洪淳起))이 편집국장 자리에 올랐다. 『만선일보』에 실린 발행정보에 따르면, 편집인은 1940년 1월 7일부터 염상섭에서 홍순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위만주국 『출판법』 제2장 제11조에 따르면, 신문지 편집인을 변경할 경우 발행인은 국무총리대신(國務總理大臣)에게 새로운 편집인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대신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발행인은 임시 편집인을 확정하고 국무총리대신에게 등록해야 한다.²⁴⁾

더한 價値며 意義도 생각함이 업시 文壇 建設에의 모든 意欲을 喪失 忘却케 되었든 것이다. 朝鮮 文壇에는 조흔 作品을 보내면서도 이곳에서는 그 나머지 駄作을 부끄러움 업시 發表하거나 朝鮮에는 發表하나 이곳에는 發表치 않는 이러한 조치 못한 傾向도 이한 가지로 解釋될 것이었다.”(黃健, 「滿洲朝鮮人文學의今後發展策」(下), 『만선일보』, 1940.1.16.)

이광현: “滿鮮日報가 養成해 노흔 新人들은 舉皆가 朝鮮 中央文壇에로 進出을 企圖코 該報를 돌보지 않는 傾向이 있는데 이래서는 百年을 가나 千年을 가나 이 땅에 文壇이란 것이 成立될 수 업스니 이 땅에 우리 文學 乃至 文壇을 創設하려는 自覺이 있는 文人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李光賢, 「文學 開拓의 設計圖」, 『만선일보』, 1940.1.27.)

안수길: “前述한 바와 가티 學藝面을 疏忽히 取扱하여 온 것이 事實이며 懸賞文藝 募集 外에는 積極의으로 文學人에게 글 써우는 活動을 하지 아니하였스며 自然發生的 投稿를 嚴選치 안코 掲載하여 水準을 低下한 嫌이 업다고 할 수 업다.”(安壽吉, 「文壇建設의 具體案과 文學人의 迫力的活動」(下), 『만선일보』, 1940.2.3.)

23) 金友哲, 「文學傳統的 繼承과 새로운 園丁의 任務」, 『만선일보』, 1940.2.20.

24) 원문: “『出版法』第二章(新聞紙及雜誌) 第十一條: 變更新聞紙或雜誌之編輯人時候, 發行人應開具欲爲新編輯人之履歷書呈請國務總理大臣准許. 新聞紙或雜誌之編輯人死亡時發行人應新定編輯人, 開具其履歷書之事由發生後十日以內呈請國務總理大臣准許. 在未經前項准許前得先定臨時編輯人, 限於事由發

발행정보에 등록된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이 신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처벌 조약(『출판법』 제4, 5장)을 감안하면, 1940년 1월 7일에 발행정보가 변경되었을 때까지의 실제 편집국장은 여전히 염상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염상섭이 편집국장의 자리에서 사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개인적 경력과 해방 후의 회고를 통해서 일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938년 4월에 모친상, 1939년 6월에 부친상을 치렀고 일시 귀국했다. 또한 그가 『만선일보』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안동에 살던 시기인 1939년 9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연속된 고통은 염상섭이 편집국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염상섭은 모종의 이유로 사임했고, 홍양명은 1940년 1월 7일에 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홍양명은 와세다대학 영문과 출신이고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여 카프의 결성에도 참여했다.²⁵⁾ 그는 1928년 4월에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피검되었고, 치안유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홍양명은 언론계로 전향했고 1931~1937년 사이에 『조선일보』의 정치부 및 편집부 기자, 외신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1938~1940년 사이에 『만선일보』의 정치부장에 이어 정치경제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40년 1월 7일부터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40년 9월 11일에 편집국장대리에서 편집국장으로 승진했고, 1941년 7월경에 만선일보사를 사직했다.²⁶⁾

신문지의 편집인은 신문 주제의 선정과 내용의 선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국장의 교체는 사실상 신문지의 스타일과 가치적 취향

生後二月以內繼續發行其新聞紙或雜誌並應由發行人即速呈報國務總理大臣備案。(劉春英 편, 2017, 『偽滿洲國文藝大事記(下)』,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423쪽, 재인용.)

25) 『親日反民族行爲真相科明報告書』(2009, 親日反民族行爲真相科明委員會 편, 현대문화사)와 『韓國현대문학대사전』(권영민,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을 비롯한 많은 자료에서 홍양명(홍순기) 생애에 대한 소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홍양명 생애에 대한 소개는 『親日反民族行爲真相科明報告書 IV-19』(491-507쪽)를 참고했다.

26) “편집국장 홍양명 임 편집국장.” (『본사사령』, 『만선일보』, 1940.9.11.): “각지 인사의 동경 洪陽명 씨 = 新京있는 滿鮮日報 편집국장으로 있다가 최근 離任한 氏는 近日 서울에 돌아온다.”(정보실, 1941, 『우리 사회의 제 내막』, 『삼천리』 제13권 제7호, 63쪽.) 親日反民族行爲真相科明委員會 편, 앞의 책, 495쪽, 재인용.

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염상섭도 홍양명도 일본인 주간과 홍보처에게 감시와 검열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941년 3월 『예문지도요강』의 반포 이전에 언론 공간은 실제로 유연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⁷⁾ 말하자면, 감시와 검열은 내용이 나오기 전이 아닌 나온 후의 행위이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인 주간의 감시²⁸⁾를 받아가면서도 당시 재만 일본이나 중국의 문인들이 지면 논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검열을 피해 평론 활동을 제창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성립되기 어렵다.

염상섭과 홍양명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을 때는 서로 정반대의 창작 태도를 보인다. 염상섭은 창작욕이 거의 없어 보였다. 『삼천리』에 게재된 평론 「깊이 없는 생활」(1939.7)을 제외하고 그는 아무런 창작활동도 하지 않았다.²⁹⁾ 염상섭은 “신문은 변창해가고 문장은 졸렬해진다”라는 문필계의 속언³⁰⁾과 “소개한 선배와의 언약을 지켜 작품에는 붓을 들지 않았었다³¹⁾”라는 말로 절필(絶筆)의 원인을 스스로 해석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안의 변고나 이른바 ‘신문은 변창해가고 문장은 졸렬해진다’라는 구실은 그가 편집국장 때 『만선일보』에서 평론

27)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1940년 6월 『만선일보』에 게재된 평론 「文學이여 現實로 돌아가라」이다. 이 글에서, 저자 이민구(李敏求)는 ‘모토 문학의 장래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만 조선인 문단을 유력 학자들은 전란을 피하고 미국으로 떠난 것에 비유하면서 만주 조선인 문학이 한글 문학의 정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염상섭은 그의 회고에서 일본인 주간의 감시를 언급했지만, 자신이 편집권이 전혀 없다는 뜻을 보여주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관동군보도반에서는 운영의 배후조종을 하고 편집을 督監視하는 日人을 보내어 와 있었는데, 나의 콧대가 그리 세인 편은 아니었으나 事事히 대립이 되고 主角이 日甚하여진 끝에 同社를 辭하고 압록강 對岸인 안동에 와서 우거하였었다.”(염상섭, 1962.11, 「회보문단회상기(1)」, 『사상계』 114호, 208쪽.)

29) 그러나 염상섭은 만선일보사를 그만두고 안동에 거주했을 때 재만조선인 작가들의 소설집 『쓰트는 대지』(신형철 편, 1941, 만선일보 출판부)와 안수길의 창작집 『북원(北原)』(1944, 예문당)을 위해 서(序)를 썼다. 그리고 안동에 있었을 때 그는 장편소설 『개동(開東)』을 『만선일보』에서 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은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못하였고, 염상섭은 1946년 귀국 도중에 이 소설의 원고를 분실해 버리기도 했다. “이때에 동사의 잔류사원들의 懇託으로 장편을 쓴 일이 있었으나, 해방과 함께 귀국 도중 짐짝을 사리원에서 털어 맡기고 온 일이 있었는데 그 짐을 이내 찾지 못하여 신문에서 오려둔 작품집을 함께 잃고 말았다.”

30) 염상섭, 1962.11, 앞의 글, 208쪽.

31) 염상섭, 1962.11, 같은 글, 208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 여기서는 염상섭이 편집국장 시절의 유일한 평론 「깊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이 단서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주위에 동화되기를 한사코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요, 무너져가는 전통을 꼭이 지켜야 하겠다는 客氣나 고집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비록 入鄉願俗이라 하여도 무비판하게 맹종하도록 어수룩하지도 않고 보니 주위를 연해 뒤돌려다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자라왔고 또 앞으로도 그 圈內에서 자기완성에 精進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나무(松)에 대(竹)를 접목하고 석류나무에서 딸기가 열리기를 바라려는 듯한 無理 없이 아는 듯 모르는 듯한 가운데 한 文化體의 血脈을 통하여 渾融된 新建設 속에 자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실제에 卽한 立案도 있어야 하겠으며 시험적이라도 실행하여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틀어 말하면 어떻게 하여야 어서어서 이 얼룩덜룩한 식민풍경과 값싼 백일홍 같은 植民色彩가 제 곶을 찾아들어서 제각기 個性美를 살리면서 참한 맛, 우아한 맛을 保持하게 되겠는가? 이것이 문제요, 또 이것은 滿洲國 獨自의 문화를 건설하는 기본이 되는 것일 것이다.³²⁾

이 평론의 발표 시점은 염상섭의 부모상과 만선일보사 사직의 사이에 있다. 전체적으로는 염상섭이 위만주국 문화 건설의 윤리와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위해 각 민족의 고유한 개성을 유지하면서 위만주국의 독특한 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문화 정책은 협화회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에게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다양한 문화체의 혈맥을 지닌 민족들이 위만주국 내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뒤이어 그는 이런 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불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32) 염상섭, 1939.7, 「깊이 없는 생활」, 『삼천리』 제11권 제7호(염상섭 저, 한기영·이혜령 엮음, 2013, 『염상섭 문장 전집II』, 서울: 소명출판, 573-574쪽, 재인용).

풍경이니 색채니 하는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깊이(深)가 없다. 넓이나 부피는 있을지 모르나 깊이가 없다. …(중략)… 이러한 것은 宜當 건설의 초기에 있어 新興의 기분이라든지 앞만 바라보고 내딛으려는 전진의 意氣가 澁刺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自然한 現象일 것이요, 또 그것은 進取力으로서 차라리 이 시기는 크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으로 보아도 血氣方壯한 때와 그 고비를 넘어선 때가 다른 거와 같이 건설이 어느 정도 까지 進歩되고 실생활이 차차 안정되어갈수록 생활의 깊이가 요구되는 것이요, 그 깊은 맛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깊이가 없는 생활은 결국에 沙上에 지은 樓閣같고 털어야 나올 것도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껌질뿐이다.³³⁾

위의 인용문에서 염상섭은 완곡한 표현으로 위만주국에 깊이가 없는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깊이의 부재는 경제적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뿌리가 결여된 데서 기인한 내적인 문제이다. 한편, 그는 신흥 국가의 초기 단계에는 이 문제를 잠시 미뤄둘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국가 건설에는 점진적으로 생활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기에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 위에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모래 위(沙上)에 누각(樓閣)을 쌓는 것처럼 불온하기 때문에 염상섭은 만주 조선인 문단을 하나의 독립적 문학 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비해 언론인 출신의 홍양명은 편집국장 시절에는 일본인 주간과 결탁하면서 『만선일보』와 『삼천리』에서 사회·경제에 관한 시평³⁴⁾을 많이 썼고, 친일적인 언론 활동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안수길의 회고에 따르면, “국장(홍양명-필자)이 산구(山口) 주간(홍보협회에서 나와 앓은 감시역)과 합작해서 우리 체면을 손상한다는

33) 염상섭, 1939.7. 같은 책, 574-575쪽.

34)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朝鮮農民과 滿洲國 開拓」, 「思想轉換의 意義」, 『삼천리』 제12권 제3호, 1940.3; 「哈市東滿間島警見記(5), 牡丹江省의 鮮農實情」, 『만선일보』, 1940.7.19; 「哈市東滿間島警見記(6), 圖們 延吉의 인상」, 『만선일보』, 1940.7.20; 「만주의 조선인」, 『삼천리』 제13권 제1호, 1941.1; 「만주국경제의 발전단계(1~4)」, 『매일신보』, 1941.9.5~11; 「재만조선인 만주국 발전에 협력」, 『매일신보』, 1941.9.18; 「재만조선인 내선일체 관념 昂揚」, 『매일신보』, 1941.9.21.

것이 일부 국원과 국장 사이의 알력의 원인이라고 짐작되는데, 그 국장이 사표를 냈다³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편집국장의 자리에 앉자마자 위만주국의 유일한 선계대표로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조교자간담회(東亞操觚者懇談會, 1940.2.11.~2.15)에 출석했다. 이 간담회는 ‘동아 신질서 건설에 대한 협력 방책, 日滿支 操觚者의 친화 연계 강화’를 주제로 하고, 특히 출석 인원은 협화회 산하의 “2600년 만주제국 경축 위원회 간사회”에 의해 결정되었는 점에서 친일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³⁶⁾

요컨대 만선일보사가 신제의 토론에 호응하는 인식의 변화는 염상섭과 홍양명 두 편집국장의 서로 다른 지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다. 염상섭은 일본인 주간에 저항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만주에서 독자적인 문화건설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집국장 시절에 거의 절필(絶筆)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만선일보』에서 문단의 건설 활동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홍양명은 일본인 주간과 협화회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편집국장 시절에 다양한 지면에서 평론을 썼다. 또한 그가 숙달하는 평론 형식을 의도적으로 학예면에 도입시키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처럼 편집국장의 서로 다른 지향은 문단 건설이라는 주제의 제기가 뒤떨어지고 신제의 토론이 1940년에 이르러야 출현하게 되는 하나의 해석이 된다.

IV. 재만 조선인 문단의 정체성 위기와 문인의 대응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1940년 초 조선인 협화 문화부의 재편과 『만선일보』 편집국장의 교체는 신제의 토론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35) 안수길, 1999, 「용정·신경시대」, 강진호 엮음,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268-269쪽.

36) “그리고 一日協和會會議室에서 열린 二千六百年滿洲帝國慶祝委員會幹事會에서 決定發表된滿洲國代表一行의 氏名은 다음과 같다.” 「東亞操觚者懇談會 滿洲國側代表決定: 鮮系代表는 本社洪陽明氏」, 『만선일보』, 1940.2.2.

원인이다. 이제는 신제의 토론 생산자로서의 재만 조선 문인들이 이 담론에 참여했다는 자발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내용적으로 보면 신제의 토론에 참여한 재만 조선 문인들이 문단 건설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안수길은 그의 발언에서 협화회를 언급하지 않고 만주 조선문학의 재건을 위한 ‘犬馬의 役’을 질 수 있는 ‘兵卒’이 될 정도로 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³⁷⁾ 그러나 신제의 토론의 텍스트에서 재만 조선 문인의 공통점을 뽑아냄으로써 그들의 참여 동기를 추정하는 분석 전략은 일정 부분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앞서 사실과 관련된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화회 문화부, 『만선일보』, 그리고 재만 조선인 문화계 사이에는 상호 저항과 상호 의존의 복잡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재만 조선인들은 다중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조직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예를 들면, 황건은 세 가지 조직체에 모두 속해 있다.) 요컨대 이러한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신제의 토론의 내용 자체가 다양한 정체성이 뒤얽힌 종합적인 산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외면하면서 재만 조선 문인들의 내재적 참여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선 문단과 재만 조선인 문단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관점이다. 즉 신제의 토론에서 나타난 조선 문단에 관한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세 조직체의 공통된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면서 재만 조선 문인의 관심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문단 내부의 문학적 담론을 관찰하는 데 있다. 특히 창작 대상의 문제에 대해 재만 조선 문인들의 입장이 다양하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통해 재만 조선인 문단 내부의 당면 과제를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제는 신제의 토론 최초의 기자 서언을 다시 살펴보자.

37) “滿洲朝鮮文學의 再建에 있어서 나도 한 개의 兵卒로서 犬馬의 役을 질 수 있다면 幸으로 생각하겠고 平素의 所懷를 述하여 文學建設이란 大業에 他山の 石이 된다면 이 또한 우에 업는 기쁨이겠다.” (안수길, 「滿洲에도 일즈기 朝鮮文學이 잇섯다(上)」, 『만선일보』, 1940.2.1.)

이곳에 사는 우리 수효가 百萬을 넘으며 우리에게는 말이 있고, 글이 있스니 거기에 따라서 文學이 업슬 수 업다. 勿論 過去에도 이곳에서 朝鮮文化 方面의 各種 作品이 發表되지 안흔 것은 아니나 그는 너무도 散漫하였스며 너무도 區區不一하였든 것이다. 文壇的으로 그럴듯한 中心的 存在라는 것이 거의 업섯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것을 그대로 내비리 둘 수는 업는가 한다. 오늘 부터라도 새 出發을 하여 두렸한 存在를 世上에 알리고 못 알리기는 全혀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建設하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거두지 안하면 안 될 것은 새삼스리 느낀 우리는 느꼈스나마 이 問題를 가장 眞摯하게 檢討해나가 지 안하면 안 될사 한다. 滿洲에 朝鮮文學을 建設하려면 어떤 方面, 어떤 用度에서 어떤 形式 어떤 手法 等等으로 着手하며 開拓해 나가야 될사. 여기에 對하여 滿洲 안에 계신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하여 文學人的 參考에 이바지하며 우리 文壇의 向할 바 길을 檢討해볼사 한다.³⁸⁾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우리’, 즉 재만 조선인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반복된 강조이다. 여기서 ‘우리’는 ‘만주’라는 공간성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에 의한 제약을 동시에 받는 복합적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새 出發을 하여 두렸한 存在를 世上에 알리고 못 알리기는 全혀 우리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은 재만 조선인 문학의 창작 주체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만 조선인의 삶은 재만 조선인(우리)을 통해서만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文壇的으로 그럴듯한 中心的 存在라는 것이 거의 업섯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은 재만 조선인 문학의 창작 대상의 정체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즉, 재만 조선인의 삶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가에 대한 호소이다. 이러한 공간성과 민족성의 요구에 대해, 황건의 지적대로 만주 조선인 문단은 만주의 역사와 특이한 성격을 갖추면서도 조선 문학의 전통을 계승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38) 기자 서언,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 『만선일보』, 1940.1.12.

39) “滿洲라는 國家와 그 歷史와 特異한 性格만이 가질 수 있는 獨自의 文學 卽 滿洲文學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爲하여서는 朝鮮文學의 傳統을 가장 잘 消化 攝取하여야만 될 것이다 이로써만 비로써 그 의 圓滿한 成就가 期待될 것이다.” 黃健, 「滿洲 朝鮮人文學의 特殊性(中)」, 『만선일보』, 1940.1.13.

실제로 1939년 전에는 여러 조선 문단의 문인들이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창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만주는 스펙터클한 이국적 풍모를 느끼고 일제의 힘을 확인하는 여행지이자 조선인의 생활세계를 확대하는 이주 공간이었다.⁴⁰⁾ 당시 이광수, 김기림, 이태준을 비롯한 많은 조선 문단의 대표적 문인들은 '만주시찰단'에 참석하여 여정 과정에서 보았던 풍토와 인습을 소재로 기행문을 썼다. 이런 기행문들은 대부분 기차나 지정된 관광코스 안에서 관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만주의 실제적 체험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들에게 만주에 대한 기대와 환상(illusion)을 여전히 촉진시켰다. 이후 1939년부터 이러한 풍토와 인습에 대한 표면적 관찰은 '만주 개척'이라는 서사적 형태에 대한 모색으로 진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설야의 『대륙』, 이태준의 『농군』, 그리고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등이 있다.

이러한 '관찰자로서의 타자(他者)'에서 '창작 주체로서의 타자'로의 전환은 재만 조선 문인들을 걱정하게 하였다.⁴¹⁾ 그들이 걱정하는 한 원인은 바로 그런 '만주 개척 소설'의 진실성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기영의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이다.⁴²⁾ 이기영은 1920년대부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왔고 이미 당시 농민소설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무려 155회에 이르는 『대지의 아들』을 단지 한 달 동안의 만주 답사를 통해서 창작해 낸 데 있다. 답사 일정과 창작 시간의 긴박감은 이기영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40) 진영복, 2010,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연구』 23, 대중서사학회, 36쪽.

41) 여기서 제시하는 '주체'와 '타자'는 만주 조선인 문단의 좌표계에서 이 작품들을 보는 시각이다. 사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조선 문단에서 발표되었으며, 서사 유형의 변화는 '만주 환상'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한 발전 단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필자의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2) 물론 『대지의 아들』을 제외하고 이기영은 만주 답사를 통해 「대지의 아들을 찾아」, 「국경의 도문」, 그리고 「만주와 농민문학」 등 세 편의 글을 더 썼다. 이 논문이 주목한 내용은 『대지의 아들』의 구체적인 오독 양상이 아니라 재만 조선 문인들의 「대지의 아들」에 대한 비판이다. 『대지의 아들』에서 나타난 이기영의 만주에 대한 상상과 만주서사의 내재적 동기에 대해 최일의 「이기영의 만주 상상과 『대지의 아들』」(2017,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연구소, 223-248쪽) 참고.

처음 서울을 떠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십여 일 동안에 온 여정을 마치려 하였었는데 한 달이 넘고 말았습니다. 먼저 발을 들여놓은 間島인데 이곳은 오래전부터 조선 사람이 많이 가서 살고 있는 곳이라 외국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같이 되기까지는 개척의 팽이를 들고 이곳에 먼저 온 분들이 피땀을 흘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로 들어갈수록 나는 개척민들의 살아나가려는 욕망과 분투의 생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牡丹江에서 하르빈으로 가는 철도 연변에 拉古라는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조선 사람은 이천여 호로 대개는 사변 이후 거칠던 만주의 땅을 일구고 씨 뿌려 거두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략)… 그래서 나는 이 한 달 동안에 그들의 생활을 보고 들은 대로 이들의 생활의 창조와 분투를 그려보려 합니다.⁴³⁾

나는 만주의 농촌을 소설화하기 위하여 약간의 재료를 수집해 왔다. 더구나 총총히 쓰게 된 나의 이번 소설이 독자의 기대에 얼마나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것은 모르나 내 뜻은 성의와 정열을 다하여 붓을 들기로 약속한다. 만주는 과연 넓고 크다. 만주를 처음 가 보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웅대한 대륙적 자연에 놀랄 것이다. 그것은 남만에서 북만으로 들어갈수록 더하다.⁴⁴⁾

그러나 이에 반해 『조선일보』에서 이 작품은 연재되기 전에 이미 ‘대륙문학의 첫 봉화’,⁴⁵⁾ ‘신문소설계의 초유거편’,⁴⁶⁾ ‘농민소설의 제일인자 이기영씨 집필’⁴⁷⁾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문학은 생활을 그리는 것이면서도 조선의 문학은 아직 이 대륙을 개척하고 있는 동포의 생활을 그려 본 일이 없다. 그리하여 본사에서 비로소 이 대륙 문학의 햇불을 들고 농민소설의 권위와 民村 李箕永씨의 붓을 빌어 이 위대한 개척자의 ‘생활의 투쟁’과 환희와 고국을 그리는 꿈을 함께 맛보려

43) 이기영, 「生活의 創造와 奮闘를 보았소—滿洲에서 돌아와 李箕永氏 談」, 『조선일보』, 1939.9.24.

44) 이기영, 「本報次回長篇小說의 珠玉篇—百萬開拓民의 血汗記 大地의 아들: 기자의 말」, 『조선일보』, 1939.9.27.

45) 「大地의 아들—滿洲는 기를 저자고 여기 “開拓者의 生活”이 있다」, 『조선일보』, 1939.9.24.

46) 같은 기사, 1939.9.24.

47) 이기영, 앞의 기사, 1939.9.27.

한 것이다”⁴⁸⁾ 심지어 동아영화제작소에서는 이 작품을 영화화하려고도 하였다.⁴⁹⁾ 이에 따라 신제의 토론에서 재만 조선인들은 이 작품을 계기로 하여 창작 주체의 정체성 문제를 토론했다. 그중에는 박영준과 윤도혁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신제의 토론 시기에, 박영준은 그의 장편소설 『쌍영(雙影)』을 『만선일보』에 연재하고 있었으며 ‘조선문단의 신예’⁵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신제의 토론에서 『대지의 아들』을 직접 언급하며 이기영의 창작 방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作家的 才氣에 依함도 만췌지만 李箕永 氏가 『大地의 아들』을 執筆하기 爲하여 二十 日 間 期限의 旅行券을 가지고 滿洲를 視察하고 도라갓다는 말에는 不安을 늦기지 않을 수 업섯다. 二十 日 동안 보고 드른 것이 大作의 胎兒가 된다면 危險性이 업슬 수 업기 때문이다.”⁵¹⁾ 윤도혁은 만주 조선인 문학의 발전을 위해 조선문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그런 작품들이 ‘생활 무대를 소재로 한 대륙문학’의 ‘건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다. “물론 該 作家의 老鍊된 筆致나 力量을 疑心하는 바가 아니라 다만 火車에 몸을 실고 此 所謂 走馬看山格으로 넓은 曠野를 車窓에서 보기만 하고 몇 군대의 開拓村을 訪問하는 것만으로 滿洲의 特殊性을 알아낼 수 잇고 一年을 通한 生活 態度를 그러케 짧은 時日로서 能히 把握할 수가 잇슬가 하는 點이다.”⁵²⁾ 또한, 그는 1938년 노벨문학상의 수상자 펄벅(Pearl S. Buck)과 그녀의 소설 『대지』를 예로 들고 깊이 있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창작 대상의 문제는 재만 조선인 이주의 역사와 계급 구성의 갱신에 기인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만주사변 직전까지 재만 조선인은 주로 봉건 관료의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피하고자 만주로 이주해가는 농민들과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만주로 넘어온 애국지사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위만주국 성립에 따라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건국이념의 배경 하에 조선인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48) 「大地의 아들—滿洲는기름저가고 여기 “開拓者의生活”이있다.], 앞의 기사, 1939.9.24.

49) 「李箕永氏 原作 『大地의 아들』 映畫化 企劃, 『만선일보』, 1940.2.24.

50) 「長篇小說 雙影 連載豫告: 朝鮮文壇의新銳 朴榮濬氏會心의大作.], 『만선일보』, 1939.12.1.

51) 朴榮濬, 「作家의 輩出과 讀者의 向上을 緊急動議(上), 『만선일보』, 1940.1.23.

52) 尹道赫, 「滿洲朝鮮人文學의 傳統性和 特異性(上), 『만선일보』, 1940.1.17.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도 다양해졌다.⁵³⁾ 또한 원래 간도에 모여있던 조선인들이 신경, 봉천, 하얼빈 등 근대화 수준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⁵⁴⁾ 이에 따라 신제의 토론에서도 재만 조선인 문학도 이전의 문학 유형을 초월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문학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황건은 이 토론의 첫 발표자로서 이러한 ‘만주문학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의 과제를 먼저 제기했다.

滿洲朝鮮人文學이 所謂 移民文學이 될지 大陸文學 亡命文學 鄉愁文學이 될지 或은 異國情緒를 노래하는 文學이 될지 過去 左翼文學이 要求하든 植民地 性格을 띤 文學이 될지 或은 阿片文學의 形態를 가출지 이는 以後의 이곳 文學人의 眞摯한 檢討에서 成果될 것이며 …(중략)… 滿洲朝鮮人의 生活이 移民性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하여 滿洲朝鮮人 文學이 實 移民文學이요 農民文學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함과 如함은 速斷의 지나친 것일 것이며 滿洲에서는 亦是 內省 文學 心理主義 文學이람도 發展할 根據가 있는 것 이며 都會 生活을 中核으로 하는 文學 장르도 能히 窺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든 文學人 自體의 教養形態며 環境이며 性格 素質의 如何에 依存할 바 만켄스니 어느 것이든 滿洲文學으로서의 獨自의 性格을 體得 創造하려 不斷히 志向하는 곳에 빛나는 來日의 그 成果가 約束될 것이다.⁵⁵⁾

53) 1940년의 위만주국 센서스에 따르면, 재만조선인은 1,450,384명에 이르렀으며, 구체적인 산업분포는 다음과 같다(滿洲國國務院總務廳統計處, 1942, 『康德7年臨時國勢調査, 全國編』, 61-71, 281-287쪽 참고; 한석정,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논총』 31, 동북아역사재단, 27쪽, 재인용).

산업	농업	축산, 임업, 수산	광업	공업	상업	교통	공무, 자유	가사 사용인, 기타 유업	무업
비중(%)	41.6	0.4	0.4	3.5	3.0	1.2	1.4	1.1	47.4

54) “(1910년에서 1936년까지) 조선인들의 경우, 도회지역 거주는 매우 낮고, 지엔타오(間島), 혹은 농촌에 집중되었다. …(중략)… (만주국의 1940년 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쌍안복성을 포함, 전 지역에 걸쳐 살았다. 19개 시(특별시 포함)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144,296명(조선인의 9.9%), 10만 명 이상 14개 도시에는 99,966명(조선인의 6.9%)에 이른다. 이것은 만주국 초기 9대도시의 조선인 거주 비율 3.5%와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3대도시 거주에도 약간의 성장이 있었다.” (한석정, 2011, 같은 글, 14-15, 20-21쪽)

55) 黃健, 「滿洲 朝鮮人文學의 特殊性(中)」, 『만선일보』, 1940.1.13.

위의 인용문에서 황건은 만주 조선인 문학의 유형에 대한 관습적 이해로부터 벗어나고 위만주국의 시대적인 특성에 맞는 문학 장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주에서도 내성 문학이나 심리주의 문학 등 모더니즘 문학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이는 문단 건설의 큰 의제로 검토되고 훗날의 실천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황건은 신체의 토론의 첫 번째 발표자로서 창작 대상의 정체성 문제를 구체화하면서 이를 이 토론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귀는 「農民文學의 方向으로」와 「國民文學으로부터 世界에 進出도록」에서 농민문학이 아직도 시대적이라고 역설하면서 ‘흙의 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진출시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위만주국 인구의 최다수는 여전히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온 농민이고 생산 수단도 아직 원시 농경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농민을 통해야만 이 땅이 지닌 웅대하고 창조적인 성격을 비로소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⁵⁶⁾ 그는 19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레이몬드(Wladyslaw Reymont)의 장편 소설 『농민』을 예로 들고 이러한 농민 문학의 장르가 내포하고 있는 강력한 역동성과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민문학이 당면한 과제에 맞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농민문학은 재만 조선 농민뿐만이 아닌 만주의 모든 농민을 창작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민족협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초민족적인 특질의 만주국민문학’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滿洲國에서 生成하려는 朝鮮文學은 即 諸民族協和의 精神을 根幹으로 하여 超民族的인 特異의 滿洲國民文學의 樹立에 究極 目的이 잇을 것을 主張하고 싶다. …(중략)… 滿洲朝鮮人文學은 그 表現의 主體를 朝鮮人 生活에만 머무러 잇지 못할 것이며 諸構成 民族의 全般 生活에 向하여 움즈기고 또한 建立되여야 할 것이다.”⁵⁷⁾

하지만 신서야는 김귀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에게 있어 문학 전통이 어느

56) “나는 여기에서 滿洲는 아득까지는 넓은 荒蕪地를 開拓하여 가는 農民이 全 人口의 最多數를 點하고 잇서 그 生産 方法이 原始的 農耕을 主로 삼는 情勢에 잇다고 본다. …(중략)… 大陸의인 雄大한 創造의 性格은 오로지 農民을 通하여 볼 수 잇슴으로 나는 이에 農民(흙)文學을 提唱하려 하는 者이다.” (김귀, 「農民文學의 方向으로 (上)」, 『만선일보』, 1940.1.20.)

57) 김귀, 앞의 글, 1940.1.20.

정도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신서야는 ‘시대와 시대의 계단을 초월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시대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학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면 안 된다고 특기(特記)했다.⁵⁸⁾ 그는 김귀의 농민문학론에 대한 판단, 즉 대부분의 재만 조선인이 개척민이기 때문에 만주 조선 문학을 농민 문학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너무 도량이 좁고 근시안적 편견’⁵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관계를 예로 들고, 인류 문명이 선천적인 전통과 후천적인 자주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 문학도 역시 위만주국의 현실에 따라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강령을 미리 계획하는 것 대신 문학 창작과 비평을 부단히 실천하는 것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 文化의 社會的 過程에서 늘 統一을 目的하고 真理를 세우기 爲해서 서로 不充分한 것을 論駁하며 態도의 不鮮明을 責하며 싸라서 우리 文化를 社會的으로 建設함에만 잇스니 우리는 늘 이러케 統一될 때까지는 論議가 大端 必要한 것이다. 싸라 歪曲된 바가 잇다면 汲버 勇敢히 取消하며 清算하려 한다.”⁶⁰⁾ 따라서 이러한 창작 대상에 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도 재만 조선 문인들이 신체의 토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와 책임감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940년 『만선일보』에 게재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

58) “文學이란 옛 時代에 잇서 새 時代를 指示할 수는 잇스나 時代와 時代의 階段을 超越할 수는 업는 것으로 그것은 文學에는 그 時代의 現實性을 가지고 잇는 새답이니 우리는 우리의 傳統文學 遺産을 無批判的으로 排擊함도 너무 狹量한 非辯證法的 小兒病者며 싸라 無條件으로 崇拜하며 陶醉되어 俗學的 歪曲된 繼承과 攝取 方法도 또한 無意味한 努力에 不過하니 우리는 그 傳統의 文學 遺産의 繼承과 攝取의 基準에 잇서 迷妄을 超越하며 嚴然한 客觀的 基準과 科學的 이데를 土臺로 하는 데서만 可能하다. 卽 歷史的인 社會的 照映의 가운데서 一切의 現實의 關係를 論理的 反省으로 體系化하는 創造的 批判的 繼承과 攝取해야 할 것이다.”(신서야, 『滿洲朝鮮文學의 性格과 特異性(下)』, 『만선일보』, 1940.1.31.)

59) 신서야, 같은 글, 1940.1.31.

60) 신서야, 같은 글, 1940.1.31.

의'라는 주제 토론의 제기 동인(動因)을 '정치 조직체', '저널리즘', '문인 단체'의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인 협화 문화부는 그의 부진을 극복하여 협화회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1940년 초부터 재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중 문화부는 '전만적인 선계문화운동'을 통하여 재만 조선 문화인과의 소외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경선계문화인에 기함」에서, 문화부는 신제의 토론이 그들에 의해 조직된 문화적 운동이라고 밝히며 재만 조선인 문단에서 합법적인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문화부는 저널리즘과 자신을 연결하기 위해 만선일보사의 사원들을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지도부에 직접 끌어들이기도 했다.

또한 1940년 초에 『만선일보』 편집국장은 염상섭에서 홍양명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재만 중국인/일본인 문단에 비해, 재만 조선인 문단은 문단 건설이라는 담론을 늦게 제기하였는데, 이 담론이 1940년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원인은 두 편집국장의 서로 다른 지향에 있다. 염상섭은 편집국장 시절에 창작욕이 거의 없었고, 위만주국 문화 건설의 윤리와 전략에 회의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며, 만주 조선인 문단을 하나의 독립적인 문학 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반해 홍양명은 일본인 주간과 협화회에 영합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편집국장 시절에 다양한 지면에서 평론을 썼다.

마지막으로 재만 조선 문인들이 문단의 정체성 위기를 의식하여 문단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이 토론의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939년부터 조선 문인들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풍토 인습에 대한 표면적 관찰 형태에서 '만주 개척'이라는 서사적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관찰자로서의 타자(他者)'에서 '창작 주체로서의 타자'로의 전환은 재만 조선 문인들에게 '만주 개척' 서사의 진실성 문제를 걱정하게 했다. 한편, 위만주국 성립에 따라 조선인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계급구조와 지역 분포도 이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이로 인해 재만 조선인 문학이 이전의 유형을 초월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으로 갱신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은 신제의 토론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만선일보』 및 관련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발생론의 차원에서 신제의 토론을 재만 조선인 문학사에 자리매김하는 데 유의미한 실천을 진행해 봤다. 물론 일부 『만선일보』 및 신제의 토론자의 다른 글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즉, 신제의 토론이 ‘정치조직체’, ‘저널리즘’, ‘문인 단체’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만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삼천리』, 『사상계』
김동인 외 저, 강진호 엮음, 1999, 『한국문단이면서』, 서울: 깊은샘
親日反民族行爲真相糾明委員會 편, 2007, 『親日反民族行爲關係史料集 XI』, 서울: 친일반민
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親日反民族行爲真相糾明委員會 편, 2009, 『親日反民族行爲真相糾明報告書』, 서울: 친일반민
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石麗珍·王志民, 2002, 『偽滿洲國史料』, 北京: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

2. 논문 및 단행본

- 문경연·최혜실, 2008, 「일제말기 김영팔의 만주활동과 연극 〈김동한〉의 협화적 기획」,
『민족문화사연구』 38
서재길, 2022, 「만주조선인 문학 건설 신제창 해제」, 『만주연구』 34
염상섭 저, 한기영·이혜령 엮음, 2013, 『염상섭 문장 전집Ⅱ』, 서울: 소명출판
왕위에, 2016, 「历史困境中的文学选择—论伪满时期山丁的“乡土文学”主张」, 『만주연구』 22
유수정, 2011,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학계의 만주문학론」, 『한일군사문화연구』 11
이혜영, 2017,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장춘식, 2012, 「《만선일보》 지상토론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 가치와 의미」, 『건지
인문학』 8
정겨울, 2020, 「‘향토’서사로 다시 읽기-량산당(梁山丁)의 문학주장과 작품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0
정덕준·이상갑, 2004,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진영복, 2010,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연구』 23
최일, 2014, 「염상섭과 재만조선인문학-‘만주 로컬리티(locality)’ 인식을 중심으로」, 『만
주, 경계에서 읽는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한석정,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논총』 31
황민호, 2006, 「滿洲地域 親日言論 ‘在滿朝鮮人通信’의 發行과 思想統制의 傾向」, 『한일민족
문제연구』 10
황민호, 2008, 「홍아협회 기관지 ‘재만조선인통신」, 『송실사학』 21

劉春英 편, 2017, 『偽滿洲國文藝大事記(下)』,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Lehyla G. Heward, 2020, 「Writing “Manchurian-Korean Literature” in the Mansŏn ilbo, 1937-194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3

투고일: 2023년 03월 18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6일

■ Abstract ■

The Debate on the New Movement for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 A Discourse Analysis of the Manseon ilbo in the 1940s

Shi, C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utilizes discours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motives behind the special column “Building a New Movement for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in the Manseon ilbo in the early 1940s. The analysis explores the topic from three dimensions: political organization, journalism, and literary groups. The Korean Consonance Union initiated a reform movement to improve the estranged relationship with Korean literary figures in Manchuria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ry movement,” which set off a debate on Korean immigrants’ proper place in Manchuria’s literary world. The editor-in-chief of the Manseon ilbo changed from Yeom Sang-seop to Hong Yang-myeong, which shifted from the former’s resistant attitude against building a new culture in Manchuria to the latter’s cooperative efforts to work with Japanese magazines and the Korean Consonance Uni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Korean literary figures in Manchuria in the construction of the literary world can also be seen as a cause of this debate, as they were conscious of the identity crisis of the literary world.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Manchukuo, the number of Korean immigrants increased rapidly, and their class structure and regional distribution also changed significantly. The debate on the new movement their literary works to fit the current situation. The debate on the new movement reflects the sense of crisis and response to these issues.

Key words: Manchuria, Manseon ilbo, Korean literature, identity crisis, literary construction, discourse analysis